

2024.07.16.(화) 증권사리포트

현대위아

이미 뱃머리는 돌린 상태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방향성은 찾아가고 있는 중

현대위아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7.7만원을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완성차의 물량 감소에도, 구동/등속 부품의 믹스 개선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으로 기존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저수익 사업의 축소로 외형 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수익성 및 자본배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하이브리드 엔진 및 열관리 부품군에서의 추가 수주와 납품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사업구조 개편도 진행될 것이다. 현재 P/B 0.4배의 낮은 Valuation은 자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2Q24 Preview: 영업이익률 3.2% 전망

현대위아의 2분기 실적은 기존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매출액/영업이익은 0%/12% (YoY) 증가한 2.29조원/730억원(영업이익률 3.2%, +0.3%p (YoY))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부문의 매출액/영업이익은 2.10조원/630억원으로 0%/1% (YoY)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산동/러시아 엔진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겠지만, 멕시코 공장의 엔진 중 일부가 일시 종료되는 효과가 있고, 완성차 내수 생산이 3% (YoY) 감소하면서 부품 매출액이 2% (YoY) 감소하기 때문이다. 솔루션(예전 FA부문) 매출액은 북미 전기차 공장에 대한 납품으로 45% (YoY) 증가할 전망이다. 공작/특수 부문의 매출액/영업이익은 14%/493% (YoY) 증가한 1,913억원/100억원으로 예상된다. 공작기계 부문이 정체되지겠지만, 방산 수출 물량 위주로 특수 부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체 영업이익률은 3.2%로 상승할 전망이다. 모빌리티와 공작/특수 부문이 각각 3.0%/5.2%로 전년 동기대비 +0.0%p/+4.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작/특수 부문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전년 4분기부터 일부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비용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2024년 말~2025년 상반기 냉매 모듈과 ITMS가 양산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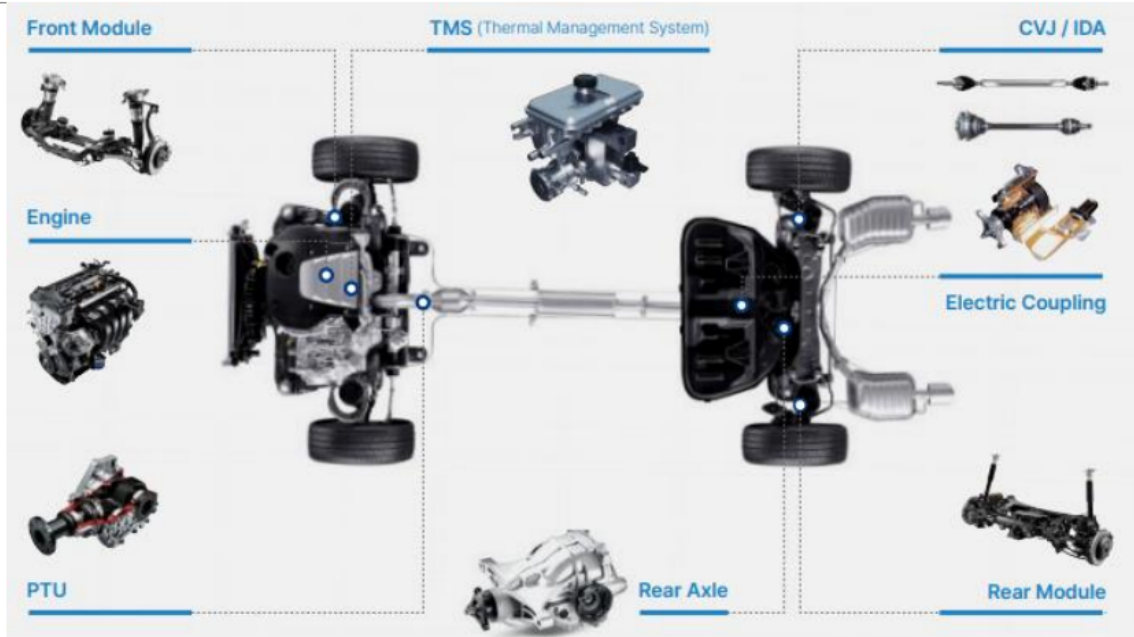
현대위아는 몇 년 전부터 열관리 시스템 회사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모듈 조립은 내수 위주로 한계가 있고, 엔진 조립은 사양 산업이며, 등속부품은 생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계 부문은 경기 변동성이 크고 경쟁 상황도 녹록치 않다. 구동부품 부문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지만, 타 부품들의 낮은 성장으로 수익성 및 자산효율성이 낮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열관리 부품군으로 진출했고, 작년부턴 냉각수 허브 모듈 매출화가 시작되었다. 모회사 전기차 모델들의 한국/북미 생산분에 대한 납품이 시작되었고, 2024년 말부터 전용 전기차 모델용 냉각수-냉매 통합 모듈의 납품도 시작한다. 2025년 상반기부터 통합 열관리 시스템(ITMS)에 대한 양산도 진행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고객사의 eM 플랫폼 수주 입찰도 진행하는 바 관련 수주에 성공할 경우 2027년 납품이 가능하다. 현재 열관리 부품군의 매출 비중은 1% 이하로 미미하지만, 신규 제품들이 납품되면서 관련 비중은 높아지고, 전기차 부품군으로 사업구조의 전환도 진행될 것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8,207.6	8,590.3	8,720.6	8,964.6
영업이익	212.1	229.2	262.0	284.4
세전이익	86.1	106.7	256.7	275.6
순이익	65.4	91.5	196.0	210.4
EPS	2,405	3,363	7,206	7,735
증감율	4.93	39.83	114.27	7.34
PER	20.56	19.36	7.74	7.21
PBR	0.39	0.51	0.41	0.39
EV/EBITDA	4.48	4.85	3.91	3.48
ROE	1.99	2.73	5.63	5.75
BPS	125,657	128,326	134,699	141,601
DPS	700	850	850	850

도표 2. 현대위아의 주요 자동차 부품들



자료: 현대위아, 하나증권

도표 3. 현대위아의 열관리 부품군 발전 전략



자료: 현대위아, 하나증권



데브시스터즈

2Q 호실적과 7/17 대규모 업데이트 주목

[출처] 신한투자증권 강석오 애널리스트

신작 성과 우수하데 컴투스 오버행 우려 주가 반영. 2Q 호실적과 7/17 신규 쿠키 및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 기대감 형성되며 주가 상승 전망

2Q24 Preview: 기존작 역주행으로 컨센서스 상회 전망

데브시스터즈는 2Q24 영업수익 566억원(YoY +47.9%, QoQ -4.9%), 영업이익 16억원(YoY 흑자전환, QoQ -80.4%, OPM 2.8%)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 1분기 <쿠키런:킹덤>의 3주년 업데이트 효과가 제거되지만 7년만의 업데이트로 <쿠키런 오리지널> 매출이 역주행해 크게 기여할 전망. 또한 6월 26일 출시된 <쿠키런:모험의탑>은 9일만에 100억원 매출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기록해 5영업일 실적 기여. 경쟁사들이나 타 장르 신작과 달리 사전 마케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거둔 성과이기에 유의미. 향후 주요국 중심의 사후 마케팅 진행에 따라 매출 상승세 전망

<쿠키런:모험의탑>은 기존작들 대비 과금 강도가 높아졌지만 액션/수집형 RPG 장르 내에선 출시 초기 라이트한 수준의 BM 설계. 7월 17일 예정된 신규 쿠키 및 스토리 업데이트 이후 유저 ARPPU 상승 전망. <쿠키런:킹덤>과 유사한 업데이트 전략 예상되며 업데이트 결과 긍정적일 경우 3Q24 일매출 추정치 상향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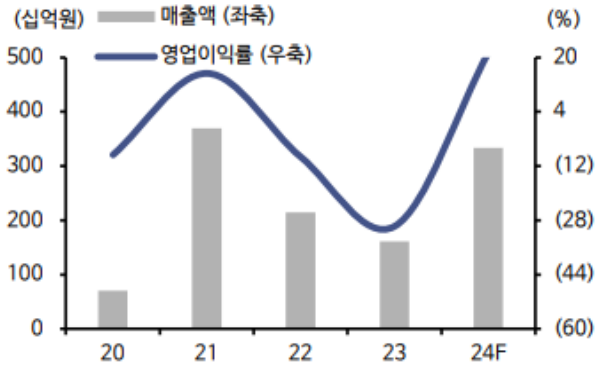
Valuation & Risk

실적 추정치 조정에 따라 목표주가를 100,000원(기존 88,000원)으로 상향. 12M Fwd EPS 6,745원에 목표 PER 15배 적용. <쿠키런:모험의탑> 일본 출시(Yostar), <쿠키런> 인도 출시(크라프트) 등 해외 비중 확대됨에 따라 멀티플 상향 전망. 컴투스의 지분 오버행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었지만 본업성과는 뛰어나 매수 기회로 판단. 게임업종 중소형주 Top Pick 유지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2	214.4	(19.9)	(6.7)	-	-	3.7	-	-
2023	161.1	(48.0)	(49.6)	-	-	4.4	-	-
2024F	333.4	71.8	64.5	9.5	39.0	3.1	6.1	-
2025F	394.5	101.0	81.1	7.5	34.0	2.2	3.9	-
2026F	424.3	110.6	75.5	8.1	23.8	1.7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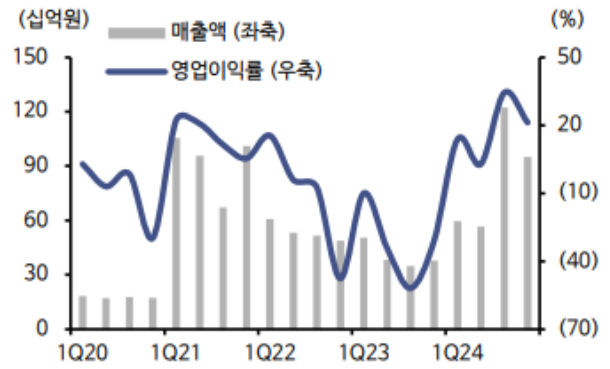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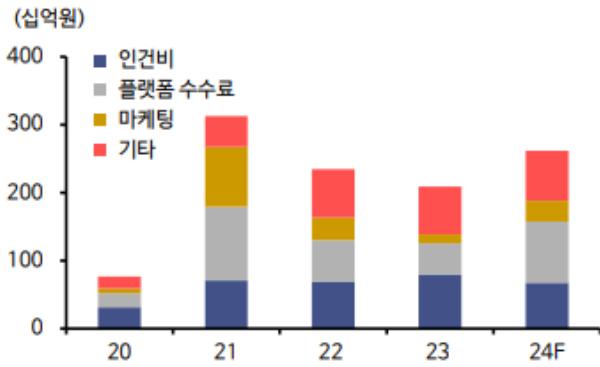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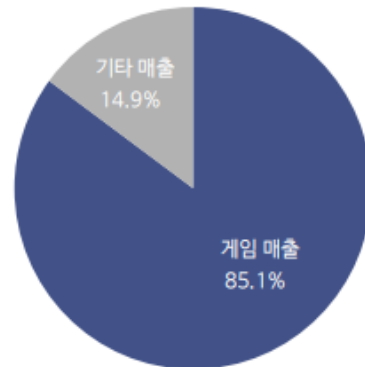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연간 비용 추이 및 전망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매출 비중(2024F)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GS리테일

2분기 Preview : 기대치 부합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2분기 시장 기대치 부합

GS리테일 2분기 실적은 시장 및 당사 추정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693억 원(전년동기대비 +3.8%), 영업이익 1,070억 원(전년동기대비 +10.1%)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2분기 긍정적 실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1) 홈쇼핑 사업부 체질 개선에 따른 수익성 증가, 2) 내식 수요 증가 및 가맹점 비중 확대에 따른 슈퍼마켓 사업부 성장, 3) 편의점 수익성 개선에 따른 이익 방어, 4) 호텔 사업부 성수기 진입에 따른 기여도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사는 전사적으로 수익성 개선 작업을 통해 이익 창출 능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프레스몰 사업 중단을 통해 온라인 효율화를 모색하였고, 홈쇼핑도 저마진 상품군 비중 축소와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분기는 편의점 사업부가 예상 대비 부진하지만, 기타 사업부 성장에 따라 전사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반기는 호텔사업부 리뉴얼 2025년은 분할

하반기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리뉴얼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호텔사업부 실적 기여도는 감소할 수 있지만, 리뉴얼 이후 ADR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2025년은 파르나스 분할에 따라 영업실적이 재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호텔사업부 가치가 확대되고 있고, 인적 분할 이후 신규사업부(파르나스) 추가를 통한 성장 전략도 제시한 만큼 합산 가치는 높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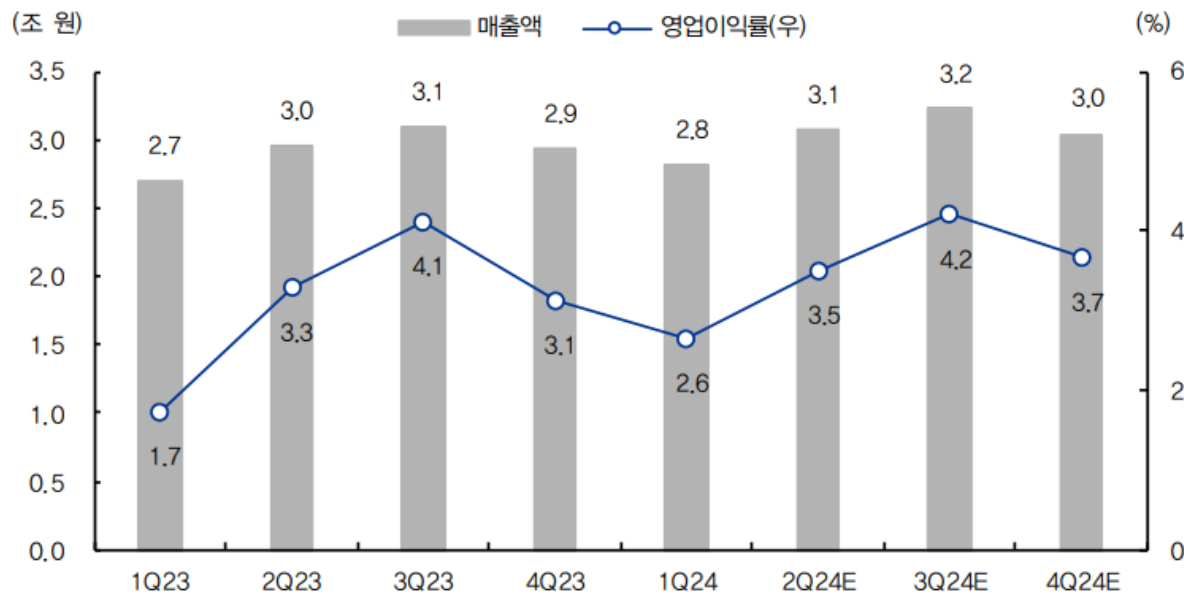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만원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3.3만원을 유지한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11,032	11,613	12,147	12,730	13,358
영업이익	360	394	428	493	568
세전이익	212	148	221	361	504
지배주주순이익	40	18	154	262	366
EPS(원)	386	169	1,469	2,532	3,539
증가율(%)	-95.7	-56.3	770.0	72.4	39.8
영업이익률(%)	3.3	3.4	3.5	3.9	4.3
순이익률(%)	0.4	0.2	1.3	2.2	2.9
ROE(%)	1.0	0.4	3.7	6.2	8.1
PER	72.9	136.5	14.0	8.1	5.8
PBR	0.7	0.6	0.5	0.5	0.5
EV/EBITDA	5.4	4.6	3.0	2.2	1.9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GS리테일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GS리테일, IBK투자증권



휴메딕스

의약품, 필러 수출이 고성장 중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2024년 2분기에 뚜렷한 영업실적 성장 확인할 수 있을 전망

2024년 2분기 매출액이 466억원(YoY +17.1%), 영업이익은 135억원(YoY +18.5%)으로 추정된다. 전문의약품이 고성장하는 가운데, 필러(엘라비에)가 수출중심으로 고성장하면서 전사 매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마진 좋은 제품이 고성장함에 따라 2분기 영업이익률이 29%내외로 추정된다.

의약품 고성장, 필러 수출이 중국, 브라질 중심으로 크게 성장

전사 매출이 필러 수출중심으로 성장 중인데,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러가 수출중심으로 고성장 중이다. 2024년 2분기에 전체 필러(엘라비에, 리볼라인)는 172억원(YoY +21.2%)으로 추정된다(표1). 필러 내수는 최근 분기당 6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그러나 필러 수출이 1분기 78억원(YoY +35.4%)이었고, 2분기에 92억원(YoY +52.1%)으로 추정된다. 현재 필러 수출은 중국과 특히 브라질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며, 이라크에서 소규모로 발생 중이다. 2024년 하반기에 러시아, 동남아(태국/베트남), CIS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분기부터는 필러수출이 100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둘째, 2분기 전문의약품(수탁)은 전년동기대비 38.9% 성장한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에 바이알공장 증설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특신을 중심으로 한 상품 매출액은 분기당 80억원대에서 정체될 전망이다. 국내 특신 매출은 국내사 간 경쟁심화로 정체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다. 점안제는 분기 30~40억원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이다. 2분기 원료의약품은 공장유지보수가 완료되어 4.2% 성장한 25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혈액응고방지제 헤파린나트륨 원료는 하반기 출시되어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123	26	21	2,109	13.1	6.5	2.0	16.0	1.8
2023	152	37	25	2,210	15.3	6.2	1.9	14.7	1.6
2024E	181	49	40	3,865	8.5	4.7	1.8	19.8	1.5
2025E	211	57	42	4,070	8.1	3.7	1.5	18.7	1.8
2026E	246	66	49	4,730	7.0	2.7	1.3	18.4	1.8

자료: K-IFRS연결기준, 상상인증권





유아이엘

2Q24 Pre ; 전년대비 영업이익 + 390.6% 성장 전망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분기를 거듭할수록 성장에 대한 기대 요인 다분한 상황

유아이엘은 1, 2분기 호실적에 이어 분기를 거듭할수록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동사는 현재 PMI 아이코스 신규 디바이스 일본 출시 모델에 대한 수주를 받으며 대응하고 있는데, 올해 8월 PMI는 동일한 아이코스 신규 디바이스에 대해 글로벌 출시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향으로 이미 확보된 700억원 수주 이외에 글로벌 론칭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더 주목이 필요한 시장은 미국이다. 올해 2월 PMI와 BAT와의 미국 시장 특허 분쟁 합의로 PMI는 미국 시장에 아이코스 신규 디바이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미국 FDA 허가를 신청 중이며, 승인 이후 동사가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동사를 제외한 벤더사들이 전부 중국 기업들이므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에는 슬림형 폴더블 모델까지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시 모델 대수 증가(Q)에 따른 실적 성장이 4Q24에도 담보될 수 있다는 뜻이다. Peer 기업들 중 독보적인 성장 중이다. 고성장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P/E 7배 수준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2Q24 Preview: 1Q24에 이어 2Q24 역시 고성장 전망

유아이엘의 2Q24 실적은 매출액 1,003억원(+46.6%, YoY), 영업이익 59억원(+390.6%, YoY)으로 상대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1) 스마트폰 부품 부문은 올해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1Q23 약 1,000만대 □ 1Q24 약 1,350만대 추정) 및 티타늄소재 적용으로 인한 ASP 상승 효과 등으로 매출액 844억원(+37.9억원, 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역시 전자담배 부문의 약진이 예상된다. 2) 전자담배 부문은 지난 3월 출시한 PMI의 2년만의 신제품인 아이코스 신규 디바이스 일본 출시로 매출액 131억원(+138.2%, YoY)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3) 추가적으로 동사는 글로벌 북미 전기차 기업향으로 작년 초부터 전장부품 양산 및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 박닌성 쿠에보공단에 Line 및 설비를 세팅 중인데 관련 실적이 1분기부터 기타 매출액으로 소폭 잡히기 시작했다. 4Q24 내에 고객사 채택을 목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규 부문으로 본격적인 매출 볼륨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2024년 매출액 4,668억원, 영업이익 262억원 전망

유아이엘의 2024년 실적은 매출액 4,668억원(+40.6%, YoY), 영업이익 262억원(+202.8%,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스마트폰 부품 부문 성장과 더불어, 신규 사업 부문인 전자담배 부문의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전체 매출액 중 전자담배 부문 비중은 2023년 8.6%에서 2024년 15.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자담배 부문의 수익성이 스마트폰 부품 부문 대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자담배 매출액 상승과 함께 OPM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PMI 아이코스 신규 디바이스 글로벌 출시 및 미국 시장 출시에 대한 수치는 제외한 보수적인 가정이다. 출시 이후 추가 수주에 따른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전장 부품 부문의 신사업 가시화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299	267	333	332
영업이익	(12)	(7)	6	9
세전이익	(12)	(15)	11	14
순이익	(11)	(16)	7	11
EPS	(494)	(751)	316	520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64.6
PER	(7.9)	(3.6)	10.5	10.4
PBR	0.5	0.4	0.5	0.7
EV/EBITDA	57.1	4.8	2.2	3.9
ROE	(7.2)	(11.7)	4.6	7.1
BPS	7,151	6,656	7,048	7,560
DPS	0	0	0	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BM 수요 증가 수혜 기대

[출처] NH투자증권 이재광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목표주가 30만원으로 11% 상향 조정. 폴란드 천무(4월/2.3조원), 한국 KF-21 엔진(6월/0.6조원) 그리고 루마니아 자주포(7월/1.4조원) 등 신규 수주 반영하여 향후 추정치 상향하였고, 9월 분할 예정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의 EV와 중복상장 자회사(한화오션/한화시스템)의 지분가치 상승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

HBM 수요 증가 수혜 기대되는 분할신설회사

분할비율 감안했을 때, 9월에 분할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1.5조원 예상. '23년 영업이익이 1,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대비 약 10~15배 수준. 한미반도체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 대비 약 70배 수준에 거래 중인 점을 감안하면 분할 이후 주주 합산 가치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언론보도(디일렉)에 따르면 한화정밀기계(분할신설회사의 100% 종속회사)의 HBM용 TC본더가 현재 SK하이닉스에서 평가 중이며, 이를 통과하면 하반기 대규모 발주가 기대된다고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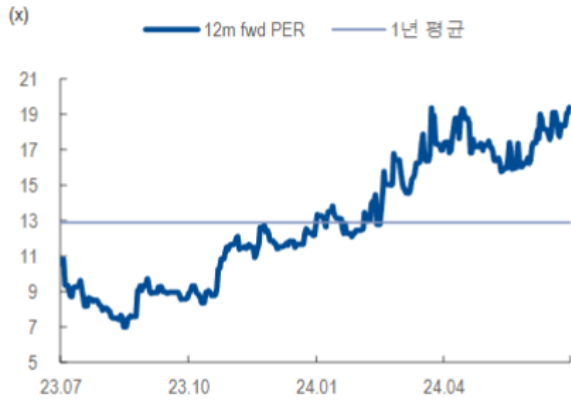
2Q24 Preview: 폴란드 수출 증가로 호실적 예상

2분기 실적은 폴란드 K9/천무 인도 대수 증가로 전년비 및 전분기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현재 1차 계약분 인도 중으로 K9는 '23년 42대에서 '24년 64대, 천무는 '23년 17대에서 '24년 32대 인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9,359	10,780	11,680	12,530
증감률	32.6	15.2	8.4	7.3
영업이익	691	845	1,073	1,156
증감률	72.6	22.3	26.9	7.8
영업이익률	7.4	7.8	9.2	9.2
(지배지분)순이익	818	409	560	610
EPS	16,147	8,069	11,051	12,039
증감률	318.5	-50.0	37.0	8.9
PER	7.7	31.8	23.2	21.3
PBR	1.8	3.3	3.0	2.6
EV/EBITDA	9.2	13.2	10.9	10.2
ROE	25.6	10.9	13.4	13.1
부채비율	317.2	283.7	255.7	230.7
순차입금	2,030	1,660	1,490	1,328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wd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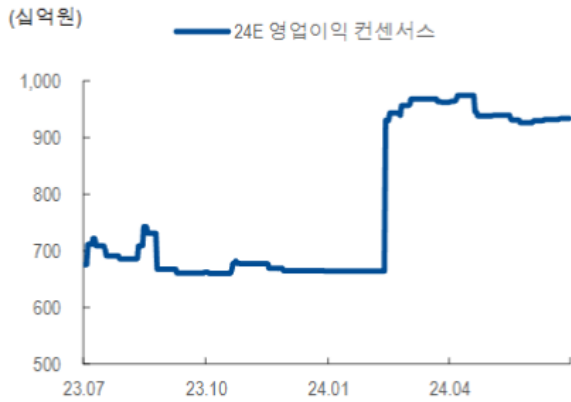
자료: FactSe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wd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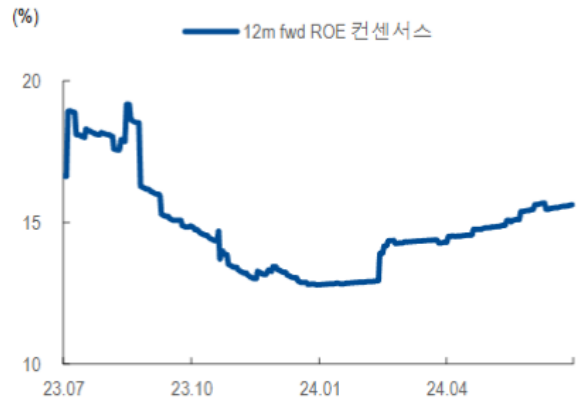
자료: FactSe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4E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료: FactSe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wd ROE 컨센서스



자료: FactSe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현대글로벌비스
 높아진 운임 인상 기대감
 [출처] NH투자증권 정연승 애널리스트

단기 운임 인상 필수, 중장기 CAPEX 확대에 외형 확장 집중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4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25% 상향. 목표주가 상향 요인은 1) 완성차해상운송 운임 인상을 통해 이익 증가 가능성을 반영, 25년 영업이익 추정치 12% 상향. 2)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자본 활용도가 개선 판단, 기적용했던 할인율을 30%에서 20%로 축소. 즉각적인 이익 개선을 위해서는 PCC 운임 인상은 필수. 최근 신조선 인도, 글로벌 완성차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자동차운반선 용선료가 고점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21년말부터 3배 높아진 용선료(현재 10.5만달러/일)를 감안, 계열사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OEM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운임 상승 여력 충분. 상승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으나,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비계열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 선대도 기존 85척에서 중장기 128척까지 확대할 계획. 25~27년까지 배당정책 강화. 주당배당금 최소 매년 5%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 제시. 2030년까지 중장기 실적 목표도 제시. 매출 40조원, 영업이익률 7% 제시. 이를 위한 CAPEX 9조원 투자. 중장기 투자 확대를 통해 선박 투자 확대, 폐배터리 Recycling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 목표 달성 의지 피력

2분기: 시장컨센서스 충족 예상

2분기 매출액 6조7,706억원(+3.6% y-y), 영업이익 4,212억원(+2.1% y-y, 영업이익률 6.2%)로 시장컨센서스를 충족할 전망. 우호적인 환율과 운임 상승이 반영. 다만 단기 실적보다는 연말 운임 인상 여부 및 상승폭이 가장 중요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25,683	27,326	29,153	29,301
증감률	-4.8	6.4	6.7	0.5
영업이익	1,554	1,663	1,967	1,953
증감률	-13.6	7.0	18.3	-0.7
영업이익률	6.1	6.1	6.7	6.7
(지배지분)순이익	1,061	1,259	1,351	1,356
EPS	28,297	33,576	36,038	36,160
증감률	-10.8	18.7	7.3	0.3
PER	6.8	7.3	6.8	6.7
PBR	0.9	1.0	0.9	0.8
EV/EBITDA	2.5	3.3	2.9	2.7
ROE	14.5	15.2	14.5	13.1
부채비율	89.2	78.3	67.8	59.7
순차입금	-1,997	-1,424	-1,025	-1,352

단위: 십억원, %, 원, 배

